

2025.01.02.(목) Signal Digest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Signal Report'의 축약 버전으로 전달 시간외 특징주와 당일 주요 이슈까지 한 장의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TODAY ISSUE>

'Today Issue'는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Issue' 코너만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로봇 #AI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 #로봇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로... 미래로봇 사업 속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868억원을 투자해 지분 14.7%를 갖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보유 중인 콜 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35.0%로 늘려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한 미래로봇추진단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이자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오준호 교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퇴임 후 삼성전자 고문 겸 미래로봇추진단장을 맡는다.

- **관련주: 에스피지, 알에스오토메이션, 삼익THK, 아진엑스텍, 인탑스, 이랜시스, 에스비비테크, 에스오에스랩, 우리넷**

#CES #젠슨 황 #AI

젠슨 황, AI 다음 물결 밝힌다...8년만의 CES 기조연설

1월6일 오후 6시 30분(한국 시간 1월 7일 오전 11시 30분) CES 스테이지에서 엔비디아 창립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전 세계는 무엇보다 젠슨 황의 입에서 어떤 'AI 비전'이 나오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AI 전도사 역할을 넘어 로봇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가상세계,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젠슨 황의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황 CEO는 지난 10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레노버 테크 월드' 행사에서 "AI는 본질적으로 로봇"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주: 유니퀘스트, 에스넷, 세코닉스, 알에스오토메이션, 원익홀딩스, 티로보틱스, 케이엔알시스템, 클로봇, TPC, 씨이랩**

#미중패권전쟁 #바이덴스 #엔비디아

美 반도체 규제 무색... 中 바이트댄스, 엔비디아 칩 10조원어치 조달 계획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70억달러(약 10조3000억원)를 투자해 엔비디아 주력 AI 칩 '호퍼'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으로 직접 들여오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 곳곳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비축해 둔다고 전했다. 미 규제와 상관없는 국가의 데이터센터에서 칩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 **관련주: 이수페타시스, 두산, 솔루스첨단소재, 덕산하이메탈, 티에스이, 엠케이전자, 한미반도체, 워트, 와이씨캠, 마이크로투나노, 퓨릿, 아이엠티, 에스티아이, 레이저셀, 이오테크닉스**

#미중패권전쟁 #해킹 #보안

中 해커에 뚫렸다... 발각 뒤집힌 美 재무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가 재무부 직원 컴퓨터와 비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며 "이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서둘러 중국의 해킹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 앤 노이버거 백악관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새해) 1월 미국의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관련주: 샌즈랩, 소프트캠프, 모니터랩, 싸이버원, 시큐센, 이글루, 한씩, 휴네시온, 라온시큐어, 케이사인, 지니언스, 드림시큐리티, SGA솔루션즈**

#우크라이나 재건

젤렌스키 "러 막고 전쟁 끝내기 위해 모든 것 다할 것"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발표하고 "2025년이 우리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러시아를 막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주: 대동기어, SG, 전진건설로봇, 에스와이, 코오롱글로벌, 다산네트웍스, 삼부토건, 디와이디, 범양건영, 스펜코, 인디에프, 대모, 현대에버다임, TYM**

#원자재 #천연가스

美 하루새 천연가스 선물가격 16% 폭등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증가는 100만BTU당 3.936달러로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6%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 선물거래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오전 장중 100만BTU당 4.2달러까지 올라 전장 대비 2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중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닥칠 것이란 예보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 **천연가스 관련주: 지에스이,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SH에너지화학, 큐로홀딩스**

#탄소배출권 #홈트레이딩시스템 거래

2025달라지는 것들... '탄소배출권'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통해 거래 가능

올해 6월부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순매도량의 5배로 완화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와 금융기관 등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 **관련주: NH투자증권, 에코아이, 에코프로에이치엔, 한솔홈데코, 에어레인, 그린케미칼, 유니드, 에코바이오, KC코트렐, 켐트로스, 태경비케이, 클라우드에어, 웨이버스, 동방**

< 장 후 시간 외 주요 사항 >

●아톤 (+8.90%)(954K) / 엑스게이트 (+1.54%)(95K)

2025년 증시 주인공 'AI' 아니다...'양자컴퓨터'가 뜬다

"양자과학 퀀텀점프의 해"...韓·美·中 기술전쟁 격화

미국은 일찍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 육성법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했다. 올해 장거리 양자 인터넷 핵심기술인 양자중계기를 새로 개발하는 등 신기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술패권 경쟁에 맞춰 2019~2023년 12억 달러(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관련 지원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12월 양자컴퓨터 상용화 걸림돌인 오류정정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양자칩 '윌로'를 공개한 구글은 향후 100만 큐비트 연산 성능과 10조 분의 1 오류율 도달을 목표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IBM도 최근 신형 양자칩 양자칩 '퀀텀 헤론'을 선보였다.중국도 새해에 양자기술 분야에서 퀀텀 점프에 도전한다. 앞서 2016년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위성인 '묵자호'를 쏘아올린 데 이어 새해 신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최근 구글 윌로 공개에 뒤이어 동급이라고 주장하는 양자칩 '주총즈 3.0'와 504큐비트 양자컴퓨터 '텐엔-504'를 선보이는 등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양자컴퓨터를 의학 연구에 활용하는 자국 내 최초의 연구소 '허페이 양자컴퓨팅·데이터 의학연구소'가 출범하는 등 상용화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관련 예산으로 2027년까지 미국과 맞먹는 10억 유로(1조 5000억 원)를 배정했다.

●아이씨티케이 (+4.39%)(334K)

[인사이트] 아이씨티케이, 양자컴퓨팅 시대에 필요한 양자암호보안 기업

●엠에프씨 (+6.52%)(292K)

(24.12.30)엠에프씨, 200조 시장 API 세계 유일 대체제 없다...경쟁사 '全無' 독점 구조

엠에프씨는 원료의약품/소재 개발 제조 전문 회사로, 유기합성 및 대량생산 기술, 신규결정화 기술 등 다양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활성성분인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을 비롯하여, 이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출발소재(Key Starting Material, KSM), 중간소재(Pharmaceutical Ingredient, PI)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네이처셀 (+6.05%)(178K)

네이처셀, 줄기세포 동결보존기술 국내 특허 등록

(24.11.01)네이처셀 주가 불기둥 만든 RMAT..."최종허가·상용화와 상관 無"

FDA 심사관 출신 이장익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RMAT 지정에 따른 혜택은 분명하다. 기간을 단축하고, 임상 개발 과정에서 FDA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신약개발이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도 "최종 허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졸업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제대로 공부도 안하고 놀기만 한다면 서울대 졸업이 어려운 것이다. 다만 서울대에 입학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이고,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다. 조인트시스템이 RMAT 지정을 받은 것은 FDA가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이노스메드 (-9.94%)(29K)

[시간외Y] 드래곤플라이, 카이노스메드 '하한가'

카이노스메드의 유상증자 납입일은 30일에서 내년 1월17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1일로,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13일에서 1월31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드래곤플라이 (-10.00%)(101K)

[시간외Y] 드래곤플라이, 카이노스메드 '하한가'

드래곤플라이의 유상증자 납입일은 30일에서 내년 2월10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1일로, 신주권교부예정일은 내년 1월16일에서 2월25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16일에서 2월25일로 각각 밀렸다.

<테마·개별 일정 Check>

△ - 기존 일정

▲ - 추가수정된 일정

△CES 2025 / 25.01.07~10

△JPM 2025 / 25.01.13~16

△美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 25.01.20

△美빅테크 방산 컨소시엄 발표 예정 / 24.01 中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 25.02 中

△전 세계 물리학회 '양자 과학기술의 해' 선포 예정 / 25.02 中

<Signal Digest>

[주간 일정]

2025년 1월 2일 목요일

美,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미국) 12월 ISM 제조업 PMI ★

자율운행선박법 시행령 시행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2025년 1월 5일 일요일

CES 2025 미디어 데이(~6일)★

골든글로브 시상식

2025년 1월 6일 월요일

CES 2025 미디어 데이(~6일)★

[경제 일반]

코스피, 나흘 연속 내려 2,400선 내줘...코스닥은 상승(종합)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5조2천710억원, 4조7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달러-원, 야간장서 1,475원 찍고 후퇴...1,472원대 마감

외환당국, 3분기 '환율 안정'에 2억달러 사들였다

이차전지·로봇주 사모으는 외국인

지난 30일 코스닥시장에서 237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날 코스닥에서 2563억원어치를 판 개인과 159억원어치를 산 기관과 대조적이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에코프로비엠에 581억5400만원에 달하는 순매수** 대금이 몰렸다. 이는 해당 기간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 기록이다. **에코프로비엠 외에도 엔캠(303억9000만원), 에코프로(205억3500만원) 등 이차전지 업종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났다.**외국인은 이차전지 업종 외 **레인보우로보틱스(431억4100만원), HLB(268억2600만원), 신성델타테크(131억200만원), 에스티팜(109억900만원) 등에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이어갔다.**

증권가, 코스피 1월 전망 2290~2650... "과매도권 진입"

"새해 증시 변곡점은 트럼프 취임일... 1기 때와 다를 것"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은 오는 20일이다. 앞서 두 달간 '트럼프 트레이딩'이 진행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2.3% 올랐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은 4.2% 빠졌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비중은 65.7%까지 불어났다.한화투자증권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 위안화 약세가 깊어지면, 신흥국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올해 1분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기 좋은 시점이라고 평가했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은 주변 여건이 좋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게 없을 때 사야 한다"며 "국내 주식 실적이 하향되는 구간이어서 모멘텀(상승 동력)을 따라다니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밸류 플레이(저평가 종목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애덤 포즌 PIIE 소장 "韓, '친중' 돌아설 때 아니다...美반응 아주 나쁠 것"

[경제/인구 구조 변화]

너무 빨리 늙은 韓경제... "남은 골든타임 15년"

새해부터 2차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9급 초봉 처음으로 200만원 넘어

[국제-미중패권전쟁]

中 해커에 뚫렸다...발각 뒤집힌 美 재무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가 재무부 직원 컴퓨터와 비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며 "이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규정했다.미국 정부는 서둘러 중국의 해킹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 앤 노이버거 백악관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새해) 1월 미국의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관련주: 샌즈랩, 소프트캠프, 모니터랩, 싸이버원, 시큐센, 이글루, 한씩, 휴네시온, 라온시큐어, 케이사인, 지니언스, 드림시큐리티, SGA솔루션즈**
 - [특징주] 샌즈랩, MS와 보안기술 협업에 상한가
 - [특징주] 소프트캠프, MS 메타버스 '팀즈' 통합 추진 보안솔루션 공급 ↑
 - [특징주] 모니터랩, 윤 대통령 사이버 보안 강화...웹 방화벽 1위 부각
 - [특징주] 싸이버원, 사이버 보안 중요성 갈수록 확대... 과기부 정보보호 전문기업 지정 부각

- 시큐센, IPO 출사표 던졌다...'업계 유일 생체인증·전자서명 보안 솔루션'
- [특징주] 이글루, 정부 "인공지능 보안기업 지원"에 '국내 최초' AI 보안관제 솔루션 '부각'

中 중심 희토류 공급망 흔들는 美...공급선 다변화로 주도권 확보 나서

美보수진영서 '머스크 안보위협론' 확산..."중국과 깊은 관계"

화웨이-ZTE 美 퇴출 가시화...삼성 반사이익 기대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 장비사의 퇴출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통신장비 회사들의 반사이익이 점쳐지고 있다.

[국제-미국]

[뉴욕증시] 사흘 내리 하락세로 2024년 마감...S&P500, 2년 상승률 53%

워드부시 "올해도 엔비디아"...AI혁명서 승리할 10개 후보 선정

워드부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2025년에도 기술 업종 주가가 평균적으로 25%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워드부시의 분석가들은 또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하드웨어 업체들이 주도하는 AI 파티에 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워드부시가 뽑은 **2025년 AI혁명의 승리자 가운데 1위는 여전히 엔비디아이다.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팔란티어, 4위 테슬라, 5위 구글 모회사 알파벳, 6위 애플 7위 몽고DB, 8위 페가스시스템스, 9위 스노우플레이크, 10위 세일즈포스이다.**

美보수진영서 '머스크 안보위협론' 확산..."중국과 깊은 관계"

[국제-유럽]

젤렌스키 "러 막고 전쟁 끝내기 위해 모든 것 다할 것"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발표하고 "2025년이 우리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러시아를 막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주: 대동기어, SG, 전진건설로봇, 에스와이, 코오롱글로벌, 다산네트웍스, 삼부토건, 디와이디, 다산솔루에타, 이노인스트루먼트, 비에이치아이, 자연과환경, 범양건영, 스펜코, 인디에프, 대모, 현대에버다임, 수산중공업, 서연탐메탈, 대창단조, 동일고무벨트, HD현대건설기계, 신스틸, 한미글로벌, 유신, 희림,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물산, TYM**

미, 우크라이에 8조원대 대규모 원조...트럼프 취임 앞 원조 예산은 바닥

[국제-중국]

시진핑 신년사 배경에 국가·관리장성만..."외풍 극복 의지 강조"

중국軍, 세계 최초로 군용 5G 시스템 개발... 1만대 군사로봇 동시 제어

중국이 세계 최초로 전장(戰場)에서 운용 가능한 군사용 '5G(5세대이동통신) 이동 기지국'을 개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중국 학술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상 기지국이 없거나 위성 신호가 손상된 전장에서 수만 대의 군사 로봇을 동시 제어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중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손에 넣었다는 것이다.

대만 총통 "中과 대등·건강 교류 원해...中이 먼저 성의 보여야"

[원자재]

러, 우크라 가스관 잠근다...EU, 한겨울에 공급 5% 감소

우크라,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유럽 가스값 1년 만에 최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겨울철 가스 공급 차질로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의 가스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美 하루새 천연가스 선물가격 16% 폭등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증가는 100만BTU당 3.936달러로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6%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 선물거래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오전 장중 100만BTU당 4.2달러까지 올라 전장 대비 2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중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닥칠 것이란 예보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 **천연가스 관련주: 지에스이,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SH에너지화학, 큐로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일승**
 - 일승, LNG운반선 트럼프 훈풍에 내년 美발주 물량 싹쓸이 기대감↑ [특징주]
 - [특징주] 지에스이, LNG 가격 상승에도 공급량 확대 불가 소식에 강세...15%↑
 - 메리츠증권 "한국가스공사, 동해 가스전 수혜 가능성 있어"
 - [특징주]대성에너지, 아시아 LNG 현물가격 5배 급등...도시가스 공급·천연가스 충전소 운영
 - [특징주] 한선엔지니어링, AI 전력 품귀 대체제 '천연가스' 낙점 소식에 강세

[국방]

"北 비핵화 포기하자"...美서 고개드는 현실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반미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친분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평화 협상을 하라는 것인데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확산할지 주목된다.미 싱크탱크 실버라도폴리시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29일(현지 시간) "트럼프와 김정은의 후반전, 세계를 흔들 수도" 제하 NYT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CO2 / 신재생]

中 폴리실리콘 빅 3 감소...韓 태양광 기업 별드나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1~3위 업체가 연달아 생산량 감축을 선언했다. 과잉 공급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해 실적이 악화하자 이를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분석도 나온다.

2025달라지는 것들...'탄소배출권'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통해 거래 가능

올해 6월부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이전에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는 이 같은 제한이 순매도량의 5배로 완화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올 하반기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와 금융기관 등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 **관련주: 에코아이, 에코프로에이치엔, 한솔홈데코, 에어레인, 그린케미칼, 유니드, 에코바이오, KC코트렐, 켐트로스, 태경비케이, 클라우드에어, 웨이버스, 동방**
 - [머니투데이] 탄소배출권 상품 거래 시범사업자... NH증권, 탄소금융 선점박차
 - [특징주]에코아이, 상장 이틀째 강세...상한가
 - [특징주] 에코프로에이치엔, 탄소배출권 판매사업 부각에 10%↑
 - [특징주]한솔홈데코, 사우디 왕세자의 25억달러 탄소저감 투자 소식에 급등
 - [특징주] 에어레인, 트럼프·머스크 탄소 포집 적극 지원...'국내 유일' 기체 포집 기술력 수혜감↑
 - [특징주]그린케미칼, MS '탄소 제로' 삼성·하늬도 강제 ...국내유일 '탄소포집' ETA 제조

[미래차]

"리튬 가격 내년에도 암울"...K-양극재, 실적 반등 멀어지나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킬로그램(kg)당 리튬 시세는 76위안이지만 올해 4분기 가격은 72.87위안 정도로 예상된다. 새해도 1분기와 2분기 리튬 가격은 이보다 낮은 68.86위안, 69.10위안 수준으로 전망된다.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새해 리튬 가격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BoA는 현재 810달러 수준인 스포듀민(리튬 원석)의 가격이 새해에는 750달러 정도일 것으로 관측했다.BoA는 "리튬 생산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활동을 줄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면 전기차 보급률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7500달러 세액공제 폐지시 美 전기차 판매 영향은?

마켓워치는, 따라서 세액 공제가 폐지되어도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 정상적으로 출시되면 판매량은 거의 줄지 않거나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Tesla to start deploying V4 Superchargers in China in 2025

Tesla, 2025년 중국에 V4 슈퍼차저 배치 시작

[삼성전자 / 반도체]

올해도 믿을 건 HBM...1분기 D램·낸드 가격 8~15% 하락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8~13%, 낸드 가격은 10~15%가량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트렌드포스는 "메모리 업체들은 올해 1분기에 재고 수준 증가와 주문 수요 약화에 직면할 것"이라면 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수입 관세에 대비한 노트북 제조 업체들의 조기 재고 비축도 가격 하락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하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와 같은 인공지능(AI) 특화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와 가격 흐름이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하면서 당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는 우세하다.특히 지난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HBM은 올해도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며 전체 D램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포스는 "HBM은 급증하는 AI 수요에 힘입어 D램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며 "특히 HBM3E(5세대)는 2025년에도 타이트(부족)한 공급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2나노 파운드리 고객사 추가 수주... "초기 수율 확보 청신호"

美 반도체 규제 무색... 中 바이트댄스, 엔비디아 칩 10조원어치 조달 계획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70억달러(약 10조3000억원)를 투자해 엔비디아 주력 AI 칩 '호퍼'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으로 직접 들여오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 곳곳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비축해 둔다고 전했다. 미 규제와 상관없는 국가의 데이터센터에서 칩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 **관련주: 이수페타시스, 두산, 솔루스첨단소재, 덕산하이메탈, 티에스이, 엠케이전자, 한미반도체, 워트, 와이씨캠, 마이크로투나노, 퓨릿, 아이엠티, 디아이티, 디아이, 에스티아이, 레이저셀,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원팩, SKC, 인텍플러스, 시그네틱스, 리노공업, 제우스, 큐알티, 제이티, 오로스테크놀로지, 샘씨엔에스**
 - [특징주]이수페타시스, 역대 최고가...클라우드 AI 및 애플 수혜 부각
 - [특징주] 두산, 미국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소재 'CCL' 단독 공급 소식에 강세
 - [특징주]솔루스첨단소재, 엔비디아에 AI전용 동박 납품 소식에 추가↑
 - [특징주]덕산하이메탈, 엔비디아 매출 폭증...세계1위 AI 부품 솔더볼 공급↑
 - 수출 1억弗 달성한 티에스이 "비메모리 키워 3년 내 2배로"
 - [특징주] 엠케이전자, AI 대장 엔비디아에 반도체 소재 공급 '↑'
 - "SK하이닉스와 도약"...한미반도체 'TC 본더' 수주효과 내년 본격화
 - [기업 이모저모] 한화 김승연 회장 입에서 나온 '반도체'
 - 한화정밀, SK하이닉스 켈테스트 순항...현대차증권 오보 리포트 '사실무근'
 - [특징주]워트, 삼성·SK 후공정 업체와 D램·HBM 투자 논의...핵심장비 국산화↑
 - [특징주] 와이씨캠, SK하이닉스 16단 HBM 최초 공개 소식에 'TSV' 공정 국내 첫 국산화 부각

유니트론텍, 인천공항의 테슬라 되나...공항화물 자율운송 테스트

최근 반도체 전문기업 유니트론텍 (4,855원 ▲115 +2.43%)이 주목받는다. 1996년 설립된 유니트론텍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여왔다. 마이크론, 마이크로칩 등 글로벌 반도체사들과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됐다. 주요 제품은 디램(DRAM),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와 MCU(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야날로그 IC 등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성된다. 국내외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고객사로 확보했다.

[AI/ 로봇]

"당장 돈 안되고 성능향상 기대 못 미쳐도"...세계는 AI인프라 영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등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약 2090억달러(약 306조4567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로, 주로 생성형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사용될 전망이다. 오픈AI는 최근 66억달러(약 9조6775억원)를 추가로 조달했으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는 60억달러(약 8조7978억원) 규모 추가 투자금을 유치했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추가로 4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총투자 규모는 80억달러에 이른다. 각국도 AI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엔(약 93조149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연구를 결합해 경제적·군사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이다. 대만은 AI 산업에 향후 3년간 매년 300억대만달러(약 1조3434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로... 미래로봇 사업 속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868억원을 투자해 지분 14.7%를 갖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보유 중인 콜 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35.0%로 늘려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한 미래로봇추진단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이자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오준호 교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퇴임 후 삼성전자 고문 겸 미래로봇추진단장을 맡는다.

- **관련주: 에스피지, 알에스오토메이션, 삼익THK, 아진엑스텍, 인탑스, 이랜시스, 에스비비테크, 에스오에스랩, 우리넷**
 - 에스피지, 레인보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감속기 개발 성공...공급 개시
 - 최근 개발된 양팔형 로봇(제품명: RB-Y1)은 오른팔·왼팔 각각 3kg의 중량을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으며, 각 관절에 20개의 감속기와 이동을 위한 휠에 2개의 감속기가 필요하다. 해당 감속기들은 모두 에스피지에서 공급하고 있다.
 - 알에스오토메이션,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협동로봇 핵심부품 '초소형 정밀 엔코더' 상용화 성공
 - 알에스오토메이션, 삼성 '반도체 공정 100% 무인화'에 로봇컨트롤러 수주 '날개 다나'
 - 알에스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로봇컨트롤러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관계자는 "알에스오토메이션은 2005년 이래 매년 로봇제어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수량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자동화·무인화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에 다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 [특징주]삼익THK, 삼성 211조 로봇시장 새 먹거리로 낙점 18년간 로봇 파트너
 - 삼성과 삼익의 만남은 18년 전부터 시작됐다. 삼익은 MC사업 초기, 삼성전자의 자동화 설비 구축에 참여하기 위해 2003년 MC사업 수원센터를 열었다. 이후 삼성전자의 로봇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 OEM업체로 함께했다.
 - [특징주]아진엑스텍, 삼성電에 로봇부품 공급하다 낙점...'제2의 레인보우 꿈꾼다'
 - [특징주] 아진엑스텍, 삼성전자에 산업용 로봇 납품 개시 소식...국내 유일 '모션 제어칩' 개발 부각
 - 아진엑스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분야 공정 자동화 장비의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거나 이동속도 또는 위치 등을 제어하는 모션제어 사업을 하고 있다.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축할 수 있는 모션제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인탑스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양산 준비 완료...초도물량 대비 시범테스트 진행"
 - 인탑스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프로젝트에서 부품 조달부터 생산 조립, 애프터서비스(AS) 등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위탁제작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특징주] 이랜시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봇핏' 감속기 공급 부각 '강세'
 - [특징주] 에스비비테크,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봇핏' 상용화...봇핏 감속기 공급사↑
 - 한국투자증권 "에스오에스랩, 美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및 테슬라 FSD 확대에 호재↑"
 - 에스오에스랩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에 OHT(반도체 웨이퍼 운반 로봇)용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다.
 - [특징주]우리넷, AMR로봇 5G 필수...삼성과 로봇 적용 5G 모듈 공동 개발 부각 '강세'
 - 우리넷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로봇 등에 적용 가능한 '국산 1호 5G 모듈'을 개발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5G 모바일 AP '엑시노스 980'과 모뎀 등을 제공했고, 우리넷등이 RF 안테나를 더해 B2B 5G 모듈과 단말을 개발했다.

2025년 '경차값 휴머노이드' 나온다...핵심부품 국산화 서둘러야

- ▶ 감속기: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웰콘시스템즈
- ▶ 모터: 케이엔알시스템, 로보티즈, 삼익THK, 하이젠알앤엠
- ▶ 엔코더: 알에스오토메이션
- ▶ 제어기: 아진엑스텍, 알에스오토메이션
- ▶ 그리퍼: 로보티크, 주강로보테크
- ▶ 이미지센서: 라온피플, 시냅스이미징
- ▶ 힘 센서: 로보티즈, 에어딘로보틱스
- ▶ 포음파센서: 하기소닉, 엘레파츠
- ▶ SW: 클로봇, 씨메스, 빅웨이브로보틱스
- ▶ 스마트팩토리: SFA, 고양, 포스코DX, LG CNS
- ▶ AI알고리즘: 네이버랩스, 마음AI, 원더풀플랫폼

젠슨 황, AI 다음 물결 밝힌다...8년만의 CES 기조연설

1월6일 오후 6시 30분(한국 시간 1월 7일 오전 11시 30분) CES 스테이지에서 엔비디아 창립자이자 CEO 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선다.전 세계는 무엇보다 젠슨 황의 입에서 어떤 'AI 비전'이 나오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그는 AI 전도사 역할을 넘어 로봇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가상세계,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젠슨 황의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황 CEO는 지난 10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레노버 테크 월드' 행사에서 "AI는 본질적으로 로봇"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주: 유니퀘스트, 에스넷, 세코닉스, 알에스오토메이션, 원익홀딩스, 티로보틱스, 케이엔알시스템, 클로봇, TPC, 씨이랩**
 - [특징주] 유니퀘스트, 엔비디아 AI 로봇으로 '챗GPT 혁명' 잇는다...'핵심 솔루션' 젯슨 모듈 국내 독점 공급 '주목'
 - [특징주] 에스넷 주가 급등, 엔비디아와의 AI 사업 협력 본격화
 - [특징주] 세코닉스, 강세...美엔비디아 로봇 사업 진출에 카메라 렌즈 공급사 부각
 - [특징주]알에스오토메이션, 엔비디아 상반기 '젯슨 토르' 출시 예정...핵심부품 부각↑
 - [특징주] 원익홀딩스,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본격화...알레그로 핸드 채택↑
 - [특징주]티로보틱스, 엔비디아 차세대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공개... 로봇 합작법인 부각에 강세
 - [특징주] 케이엔알시스템,엔비디아·보스턴다이내믹 로봇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맞손' ...수혜 기대감↑
 - [특징주] 클로봇,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개발' 동맹...'공동개발 확대' 소식에↑
 - [특징주]TPC, 엔비디아 'GTC 2024'서 TM로봇 세션 참여...국내 판매사 부각↑
 - 씨이랩, 가상 데이터 통해 로봇 자율주행 위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
 - 씨이랩, '엔비디아 옴니버스 AI 기술 적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한다

올사년 새 전쟁터는 'AI로봇'...재계 총수들, '휴머노이드' 등 선점 사활

국내 주요 기업들, 특히 총수들이 로봇 분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미래 제조 공장의 혁신을 넘어 '삶의 질'을 바꿀 핵심 기술로 꼽히기 때문이다. 생성형AI 등장으로 '대화'의 영역에서 혁신이 바람이 불었다면, 다음 세대로 일컬어지는 '피지컬AI' 시대가 도래하면 육체적인 분야에서 체감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마켓앤드마켓이 전망한 서비스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471억달러(약 69조원)에서 2029년에는 986억5000만달러(145조2000억원)로, 연평균 15.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로봇에는 의료·배송로봇뿐 아니라 무인운반차량(AGV), 휴머노이드, 건설로봇 등 환경·공장·병원·공공 등 전문응용분야도 포함된다.

[IT/기술]

AI 넘어 세상 바꿀 기술...양자컴퓨터, 언 누구냐

10자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아시는지.10자년은 10셉틸리언(10의 24제곱·Septillion)년을 말한다. 인간 두 뇌로 가능조차 안 되는 길고 긴 시간이다.이런 상상을 해보자. 현재 컴퓨터로 10자년은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어내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면? 산업혁명이나 인터넷·모바일·AI 혁명을 뛰어넘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어쩌면 인류는 상상 속 세상의 단초를 마련했다. 2024년 12월 11일 구글은 새로운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컴퓨터를 활용하면 10자년이 필요한 문제를 5분에 풀어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런티어는 물론, 5년 전 구글이 1만년 걸리는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발표했던 성능보다 크게 빨라졌다.이처럼 양자컴퓨터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해 '꿈의 컴퓨터'로 불린다.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 중 하나의 값만을 표현할 수 있는 비트(Bit)로 정보를 처리한다. 양자컴퓨터는 양자 상태에서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Qubit)로 연산한다. 큐비트를 활용하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표현하고 연산 횟수를 줄여 빠르게 최적의 답을 찾는다.인공지능(AI) 시장이 커질수록 막대한 계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책당국은 2024년 AI와 양자컴퓨터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가상 자산 / 가상 현실]

액션스퀘어 장현국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기업으로 대전환"

장 대표는 "액션스퀘어에 영입이 됐다기보다는, 사실상 새로운 창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게임 개발사인 액션스퀘어를 블록체인 게임 및 플랫폼 기업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첫 출발은 이더리움과 연계된 새로운 레이어1(자체 네트워크 기반) 블록체인 메인넷이다.장 대표는 "1월 말까지 스위스 추크에 새로운 블록체인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삼아 2월에는 토큰 발행 및 ICO(가상자산공개) 또는 IEO(거래소를 통한 코인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며 "3월에는 이와 연동한 첫 번째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장 대표는 "2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회사명도 새롭게 변경할 계획"이라며 "김연준 공동대표는 기존에 액션스퀘어가 진행하는 게임사업을 총괄하고, 블록체인 사업은 내가 맡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양한 국내외 게임을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 끌어들이고, 자유롭게 게임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신년 인터뷰-장현국 액션스퀘어 대표②] "1월 재단 설립-2월 코인 발행-3월 게임 출시"

[신년 인터뷰-장현국 액션스퀘어 대표③] "커뮤니티-결제 필요없다...월렛-SDK에 집중"

일론 머스크 X 바뀐 프로필 뒤길래...밈코인 900% 치솟았다

스위스, 중앙은행 '비트코인 비축 의무화' 되나...국민투표 부친다

스위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 10명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보유금의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번 이니셔티브는 스위스 연방 총리가 발표했다.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SNB는 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축금에 포함하게 된다.

[IP/엔터]

'오징어 게임2' 첫 주 성적은 성공적... 92개국서 1위, 시청시간 5억 시간

"오징어게임2', 최소 1조5천억원 이상 수익 기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가 최소 1조5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관련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아티스트스튜디오, 위지웍스튜디오, 쇼박스, 덱스터, 해태제과식품, 오뚜기**

[BIO / 의료AI]

'국산 항암제 최초' 美·유럽 뚫은 유한양행 '렉라자'... 中·日 진출도 기대감

12월30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J&J)은 자회사 이노베이티브 메디슨(구 안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맵)와 유한양행의 렉라자 병용요법이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중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엑손19 결손변이 또는 엑손21 L858R 치환변이)를 가진 성인 환자 대상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용요법은 앞서 같은 해 11월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허가 권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허가로 유한양행은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으로부터 3000만달러(약 44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할 전망이다. 유럽 내 렉라자 매출에 따라 10% 이상의 로열티도 받게 된다.

'탈모약' 속도 내는 K바이오...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안전성 확보 노린다

상업화가 가장 빨리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종근당이다. 종근당이 남성형 탈모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 'CKD-843'은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환자 모집 중이다. CKD-843은 3개월에 1회 투여로 기존 경구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응제약은 위더스제약, 인벤티지랩과 함께 탈모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3001을 개발 중이다. 이 주사제는 1개월에 1번 투약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IVL3001은 호주에서 임상 1상을 1년간 진행해 탈모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인체 검증 결과를 도출했다. 기존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최대 위험 요소인 초기과다방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췄다는 평가다.

큐로셀 CAR-T 치료제 '림카토', 2025년 첫 국산 신약 후보 물망

업계에 따르면 큐로셀은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임상시험 최종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혈액암의 일종인 재발성·불응성 거대B세포 림프종 적응증에 대해 승인을 요청했다. 림카토가 2025년에 첫 국산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선정된 점이 꼽힌다. 이에 따라 림카토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급여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협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FDA update

- HLB생명과학 510(k) Premarket Notification
 - 장치분류명: 주사기

[조선 / 해운]

조선업, 2025년도 성장세 순항 예고... 관건은 '비용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024 조선해양산업 동향 및 2025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조선 3사의 매출은 평균 7~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LNG선 수주잔량 확대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재개 △특수선 부문 신규 수주에 따른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2025년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잔액이 2024년 3분기 말 대비 10.3% 증가한 1372억 달러(약 202조5072억원)로 전망하며, LNG 운반선의 수주가 그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에너지 마리타임 어소시에이츠(EMA)는 2024~2028년 글로벌 해양플랜트 발주 규모가 최대 1730억 달러(약 255조3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플랜트 선두주자인 삼성중공업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잠비크 프로젝트 이후에도 대형 해양플랜트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미 의회조사국(CRS)은 FY2025 NDAA: Defense Industrial Base Policy를 통해 2030년까지 미 해군 MRO 예산은 연간 25% 이상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장 규모는 올해 약 20조원에서 2030년 약 76조2000억원으로 3.8배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한화오션은 미 해군 7함대 군수지원함과 급유함 정비를 수행하며,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MRO 사업을 확장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4년 7월, 미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향후 5년간 MRO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했다.

"요즘 세상에 일자리 넘치는 곳 있다니"...순풍 만난 K조선, 도크마다 빼곡

[정치]

[천지일보 신년여론조사]尹지지율 36.1%, 전 지역·연령대서 반등... 비상계엄 전 수준 회복

[신년특집 여론조사]국힘 35.7% 민주 40.4%...오차범위 내[에이스리서치]

'이재명' 30%대 새해 여론조사 모두 1위...홍준표·오세훈·한동훈 '각축'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28~2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39.5%로 1위를 차지했다.2~4위는 여당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8.9%),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대표(8.0%)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했다.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범진보 합치면 44, 범보수는 33% [신년 여론조사]

이준석 "오세훈·홍준표·안철수·한동훈 중...안철수랑 연대"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편치'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중 한 사람과 연대를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철수 의원"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가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선악을 가르치는 법조인 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부연했다.그는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 제가 먼저 안철수 의원한테 가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철수 관련주 : 안랩, 씨니전자, 까뮤이앤씨, 케이알엠, 브리지텍, 오픈베이스, 한국정보공학,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등

[M&A / 주요 공시]

한울소재과학, 138억 규모 유증 납입 완료...양자사업 투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주주서한 발송...23일 임시주총 지지 호소

[기타]

260,000,000,000원...'무안참사' 예약금 환불 행렬에 제주항공 '비상'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 규모는 약 2606억원으로, 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대 규모다. 제주항공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이다. 대부분의 취소 건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가 벌어진 29일 오전 9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측은 현재 사고 수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취소량은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라면서도 "신규 유입량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